

한국경제학회·한국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장기 재정전망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과제

2022. 1. 13

박명호

홍익대학교

목차

- I 장기 재정전망 개요
- II 장기 재정전망 결과
- III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 IV 결론 및 시사점





장기 재정전망 개요

1. 전망 배경
2. 전망 의의 및 한계
3. 전망 체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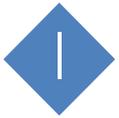


장기 재정전망 개요

1. 전망 배경

◆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는 출산을 저하 및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경험 중

지표		11년 (10-60)	16년 (15-65)	19년 (17-67)	21년 (20-70)
합계 출산율	20년	1.35	1.24	0.90	0.84
	40년	1.42	1.38	1.27	1.19
	60년	1.42	1.38	1.27	1.21
기대수명 (남/여)	20년	79.3 / 85.7	80.3 / 86.2	80.3 / 86.1	80.5 / 86.5
	40년	83.4 / 88.2	84.7 / 89.1	84.6 / 89.0	86.1 / 90.8
	60년	86.6 / 90.3	87.8 / 91.2	87.7 / 91.0	88.3 / 92.0
부양비 (총/노년)	20년	40.7 / 22.1	39.5 / 21.8	38.6 / 21.7	38.7 / 21.8
	40년	77.0 / 71.0	77.4 / 58.2	77.5 / 60.1	76.0 / 60.5
	60년	101.0 / 80.6	101.6 / 82.6	108.2 / 91.4	106.3 / 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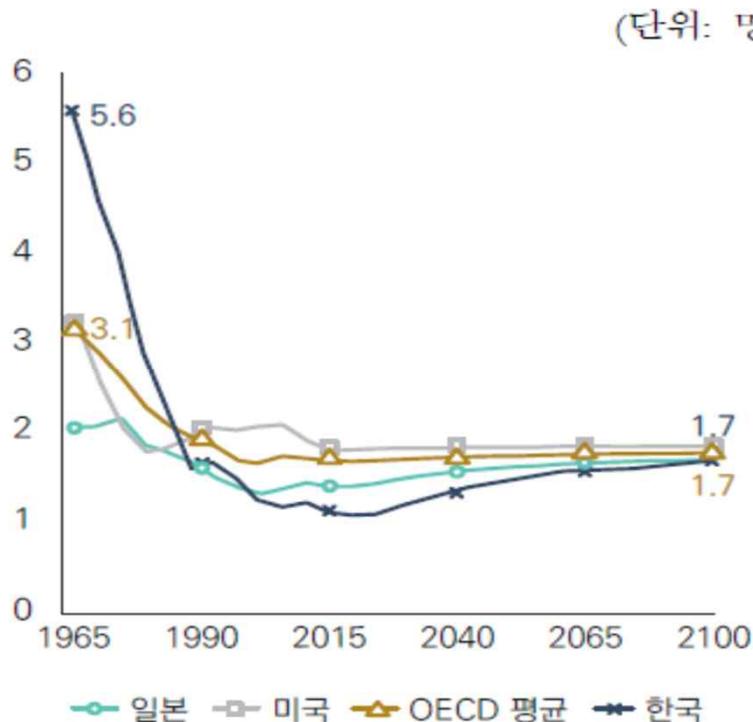


장기 재정전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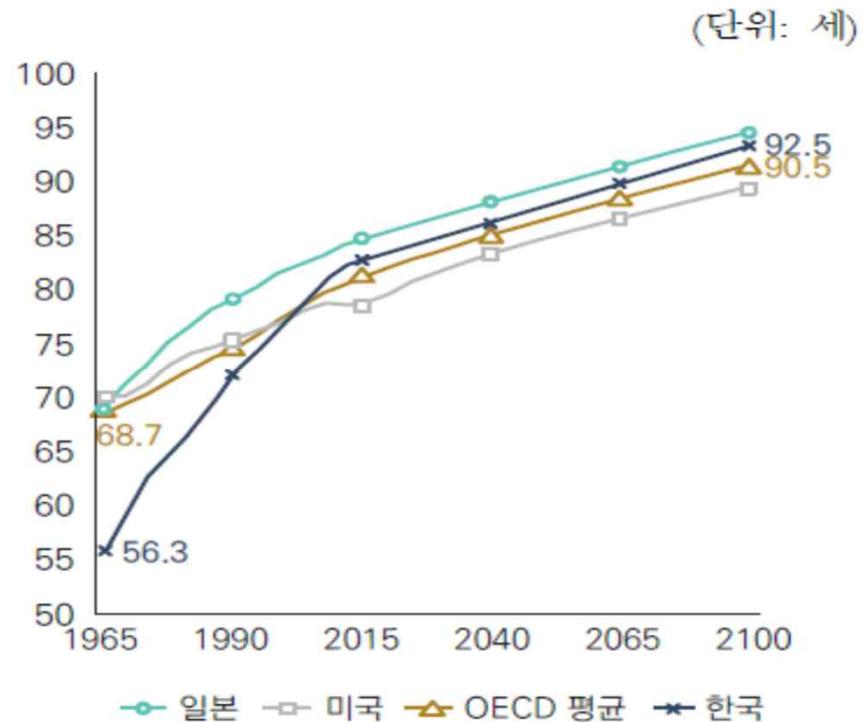
1. 추진배경

- ◆ 인구고령화 추세는 대다수 선진경제가 당면한 문제이나,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른 특징 존재

<합계출산율(1955~2100년)>



<기대수명(1955~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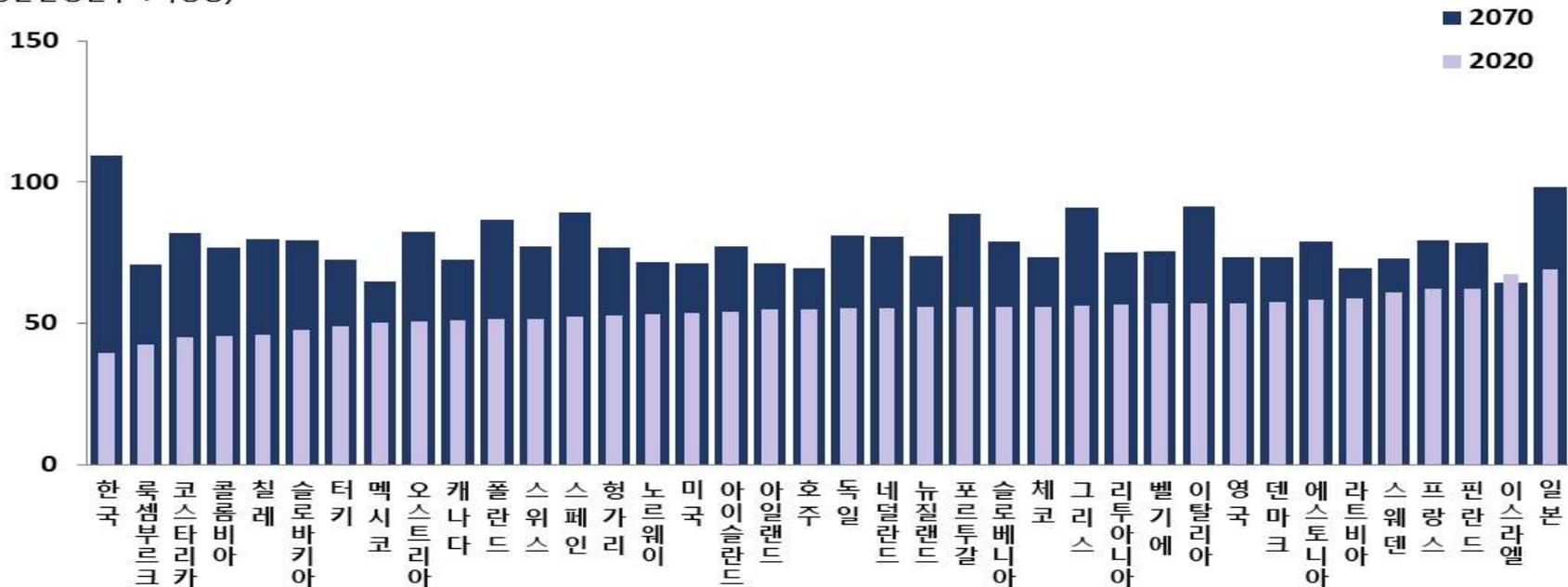
장기 재정전망 개요

1. 추진배경

◆ 총부양비는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38.7명)이나 2070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116.8명)일 것으로 추계

<OECD 국가의 총부양비 비교>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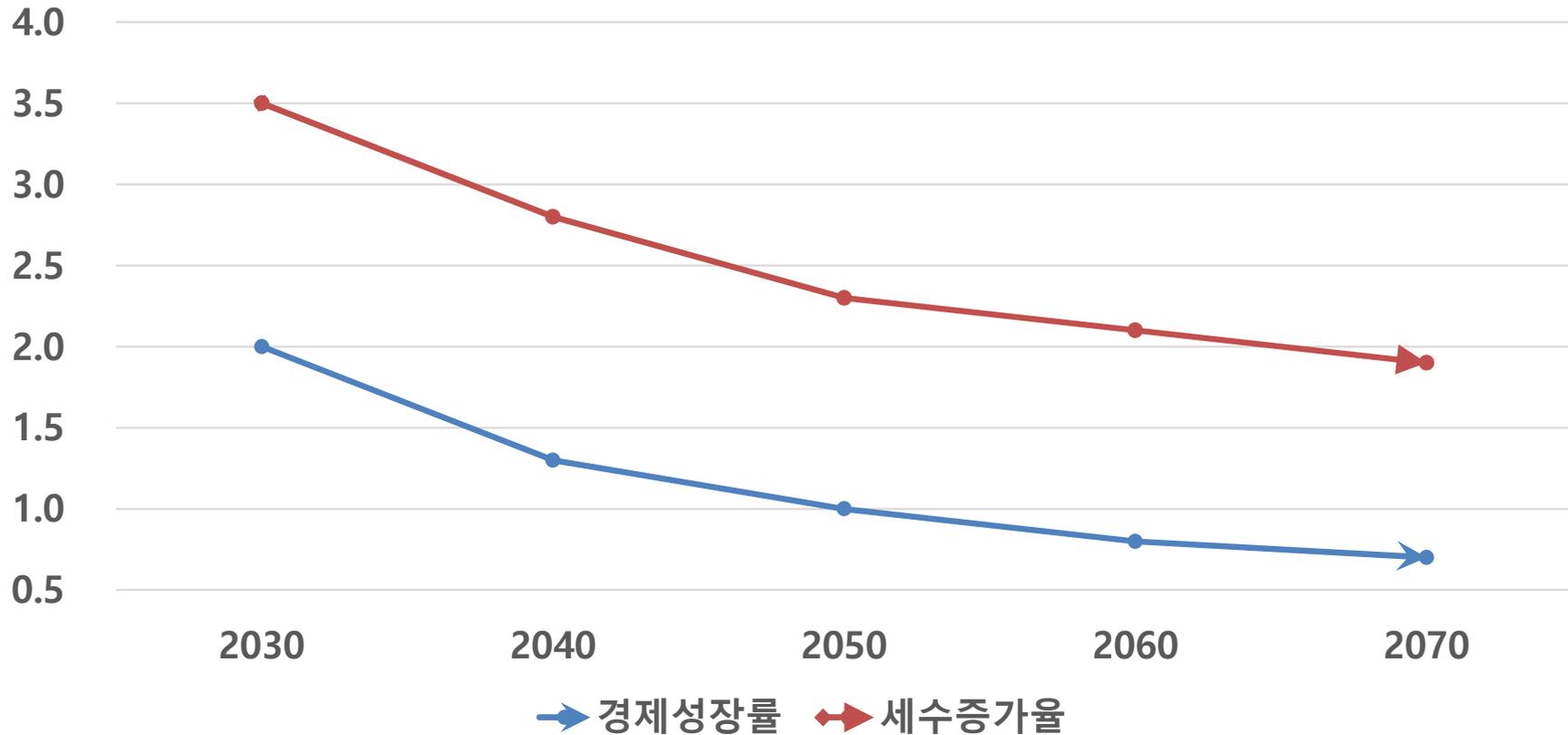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2020~2070, 2021.



장기 재정전망 개요

◆ (거시경제 여건 악화) 생산인구감소 및 생산성 저하로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세수증가율의 둔화 전망

(단위: %)





장기 재정전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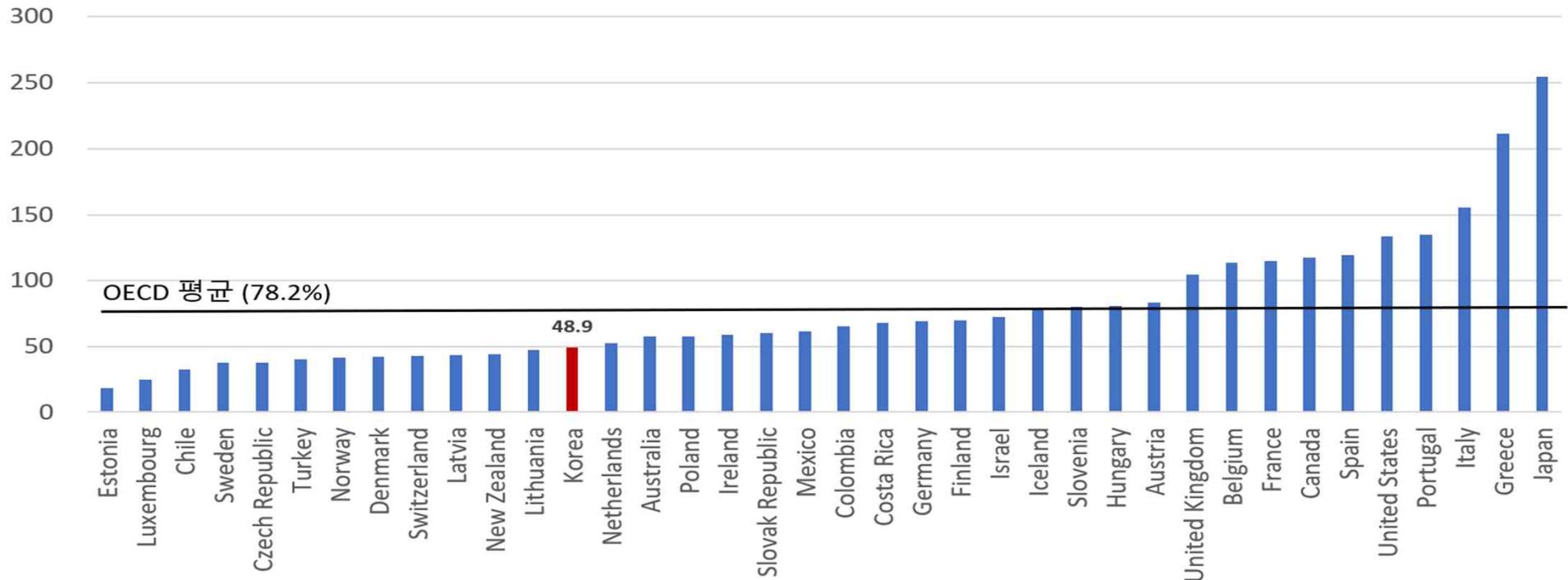
◆ **(국가재정예의 부정적 영향)** 급격한 인구고령화 및 비우호적인 거시경제 여건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 가능

➤ **현 재정상태는 OECD 평균보다 양호,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

▪ 2020년 D2/GDP : 우리나라 48.9% vs. OECD 평균 78.2% (기축: 94.2%, 비기축: 53.6)

<2020년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부채, % of GDP>

(GDP 대비 %)





장기 재정전망 개요

2. 전망 의의 및 한계

◆ **(목적)**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 필요성 점검

⇒ 인구구조 변화에 크게 영향 받는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적어도 40년 이후의 국가재정의 모습을 전망

▪ **8대 사회보험**: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보험(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에 활용



장기 재정전망 개요

2. 전망 의의 및 한계

◆ (기능)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위험의 조기경보 수단으로 활용

- 제도개혁의 필요성 점검
- 뒤늦은 개혁 비용(costs of reform delay)의 심각성 제시
- 재정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부부문에 대한 신뢰 개선



장기 재정전망 개요

2. 전망 의의 및 한계

◆ **(한계)** 재정전망은 인구 및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개연성 높은 시나리오를 전제로** 현행 재정정책 및 그 기초가 유지될 경우 발생할 **재정적 결과를 추계(projection)**하는 작업

⇒ 추계의 기초가 되는 시나리오나 재정정책 기초는 전망기간 동안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재정전망의 결과도 변경 가능

⇒ 날씨예보처럼 미래의 특정시점에 비나 눈이 내릴 사건을 **확률적으로 예측 (forecasting)**하는 것이 아니므로 맞느냐, 틀리냐는 식의 평가는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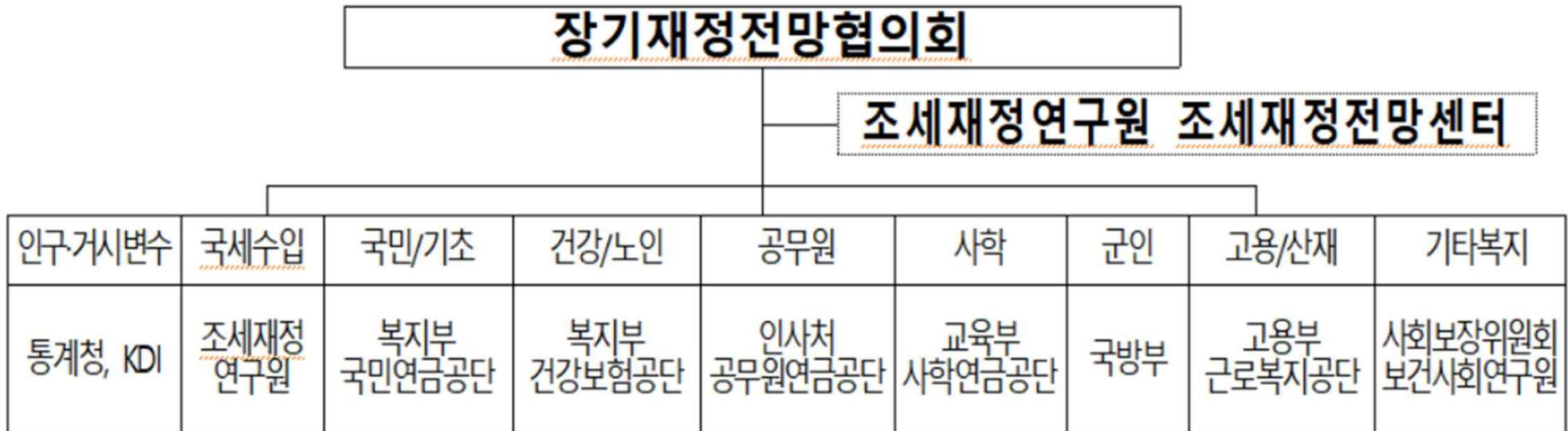
장기 재정전망 개요

3. 전망 체계 및 방법 :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

◆ (체계)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책임기관으로 하여 두 차례(2015, 2020)에 걸쳐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공개

➤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7조 ④

- 주체: 기획재정부장관
- 전망기간: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 전망주기: '적어도' 5년마다 실시 ⇒ 5년마다 실시 (2020.7 시행)





장기 재정전망 개요

◆ (전망방법) 정부차원의 통합된 전망결과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전망 분야에 동일한 인구·거시경제 전망치를 적용

- 인구는 **통계청**, 잠재성장률 등 거시경제변수는 **KDI**, 전망의 원칙·방법·내용·일정 등 공통 전망지침은 기재부와 협의 하에 **조세연**이 제공
 - 국민연금 등 2060년 이후 기간까지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분야를 위해서 100년 시계의 인구 추계 및 거시경제변수 전망 수행
- 현재의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각 분야별 전망 및 국가재정을 전망하고, 향후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 추가 실시
 - 의무지출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전망하고, 재량지출은 현행 재정기조를 반영한 시나리오로 전제하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전망 등을 토대로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추계
 - 각 분야의 전망담당기관은 인구 및 거시 등 공통 전망전제를 받아 기금투자수익률을 전망하고, 각 제도별 중요 제도변수(예: 가입률, 징수율 등)에 대한 가정을 통해 각 제도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적립금 등에 대한 추계 수행

장기 재정전망 절차

1. 전망전제

- ① 전망 공통전제
 - 인구
 - 거시경제 변수: 성장률, 물가, 임금, 이자율 등
- ② 분야별 중요 전망전제
 - 직역연금 보수상승률 등

< KDI / 통계청 / 공단 >



2. 항목별 전망

- ① 총수입
 - 국세 수입, 사회보험 수입
- ② 총지출
 - 의무지출: 8대 사회보험, 기초연금, 복지지출, 지방이전 등
 - 재량지출

< 조세연 / 관련부처 / 공단 >



3. 총량 전망

- 재정총량
 - 국가채무
 - 재정수지
 - 총수입, 총지출

< 기재부 / 조세연 >



장기 재정전망 결과

1. 정부의 2020 장기 재정전망
2.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장기 재정전망
3. 전망결과 비교



장기 재정전망 결과

1. 정부의 2020 장기 재정전망

◆ (전망 시나리오)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3가지 시나리오 설정

- 현상유지 시나리오: 인구 중위, 거시 중립
- 성장대응 시나리오: 인구 중위, 거시 적극(현상유지 경제성장률 + 0.8%)
- 인구대응 시나리오: 인구 고위, 거시 중립

시나리오		ˆ20(A)	ˆ30	ˆ40	ˆ50	ˆ60(B)	B-A
현상유지	인구(만명)	5,178	5,193	5,086	4,774	4,284	△894
	경제성장률 (10년 평균, %)	2.3	1.3	0.8	0.5		△1.8
성장대응	인구(만명)	5,178	5,193	5,086	4,774	4,284	△894
	경제성장률 (10년 평균, %)	3.1	2.1	1.6	1.3		△0.8
인구대응	인구(만명)	5,194	5,341	5,355	5,161	4,808	△386
	경제성장률 (10년 평균, %)	2.4	1.5	1.1	0.9		△1.5



장기 재정전망 결과

1. 정부의 2020 장기 재정전망

◆ (특이 가정) 특정 재정준칙의 도입을 전제로 장기 전망 수행

- (재정준칙)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재량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어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
- GDP 대비 재량지출 규모 급감: ('20) **13.0%** → ('60) **5.8%** (6.6%, 6.3%)

<총지출 및 재량지출 추계결과: 재정준칙 도입 전제>

(단위: GDP 대비 %)

시나리오		'20	'30	'40	'50	'60
현상 유지	총지출	25.9	27.4	27.4	27.4	27.4
	재량지출	13.0	11.8	9.1	7.0	5.8

☞ 2015년도 장기재정전망: **재정정책의 기초를 반영**하기 위해 '15-'1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마지막 연도의 **GDP 대비 재량지출 규모인 10.9%**를 전망기간 동안 유지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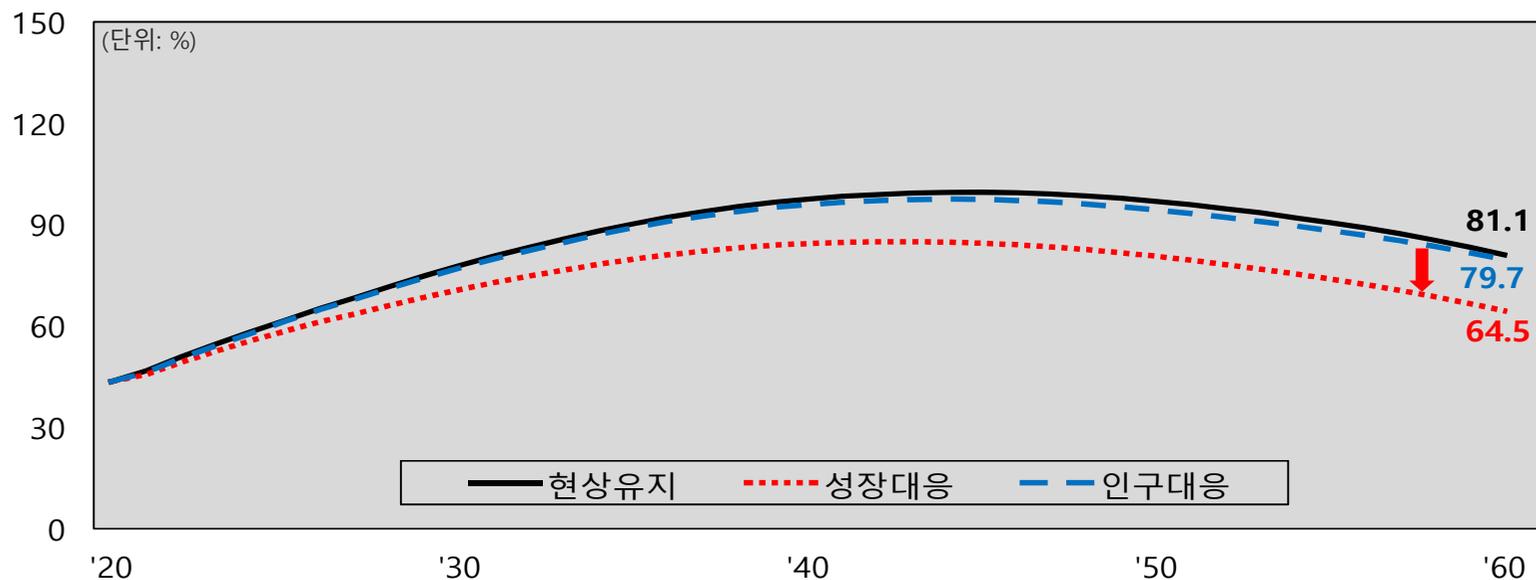
장기 재정전망 결과

1. 정부의 2020 장기 재정전망 : 재정총량 전망결과

◆ **(국가채무 비율)** 재정준칙의 도입효과로 40년대 중반까지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망

- 현상유지: ('20) 43.5% → ('45) 99.6% → ('60) 81.1%
- 성장대응: ('20) 43.5% → ('43) 84.9% → ('60) 64.5%
- 인구대응: ('20) 43.5% → ('44) 97.5% → ('60) 79.7%

〈정부 장기재정전망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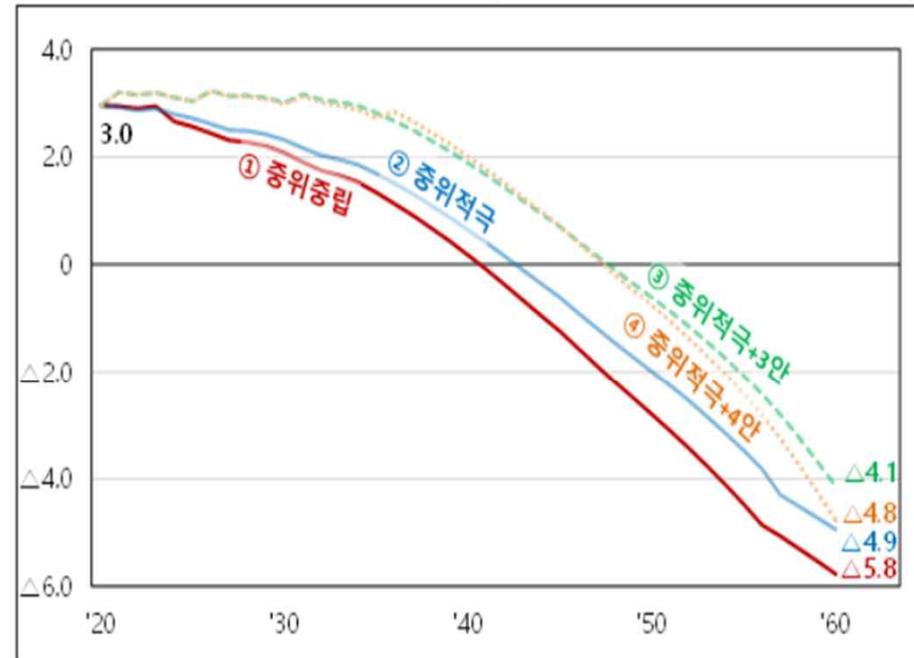
장기 재정전망 결과

1. 정부의 2020 장기 재정전망 : 사회보험 분야 전망결과

◆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2018. 8월)보다 재정수지 적자전환이 소폭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

- ① 중위중립 : '41년 적자 발생
('20)3.0 → ('40)0.2 → ('60)△5.8
- ② 중위적극 : '43년 적자 발생
('20)3.0 → ('40)0.6 → ('60)△4.9
- ③ 중위적극+3안 : '48년 적자 발생
('20)3.0 → ('40)1.9 → ('60)△4.1
- ④ 중위적극+4안 : '48년 적자 발생
('20)3.0 → ('40)2.0 → ('60)△4.8

(단위: GDP 대비 비율, %)



*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상의 개선방안(3안, 4안) 반영을 가정할 경우
(3안(소득대체율 40→45% + 보험료율 9→12%), 4안(소득대체율 40→50% + 보험료율 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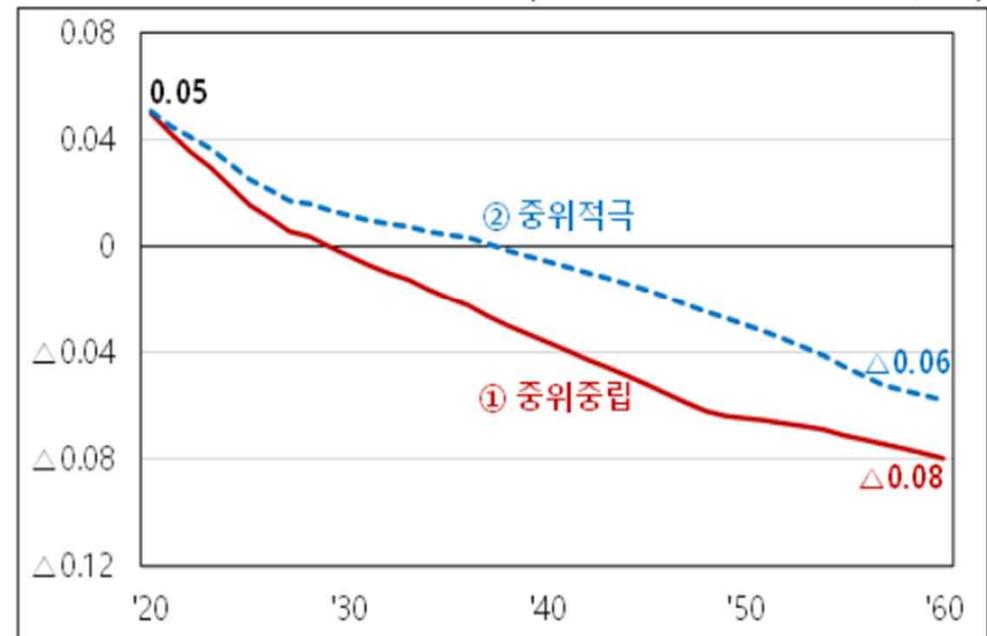
장기 재정전망 결과

1. 정부의 2020 장기 재정전망 : 사회보험 분야 전망결과

◆ (사학연금) 현상유지 시나리오 상 재정수지는 2029년 적자로 전환

- ① 중위중립 : '29년 적자 발생
('20)0.05 → ('40)△0.04 → ('60)△0.08
- ② 중위적극 : '38년 적자 발생
('20)0.05 → ('40)△0.01 → ('60)△0.06

(단위: GDP 대비 비율, %)





장기 재정전망 결과

1. 정부의 2020 장기 재정전망 : 사회보험 분야 전망결과

◆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 상태가 지속 · 확대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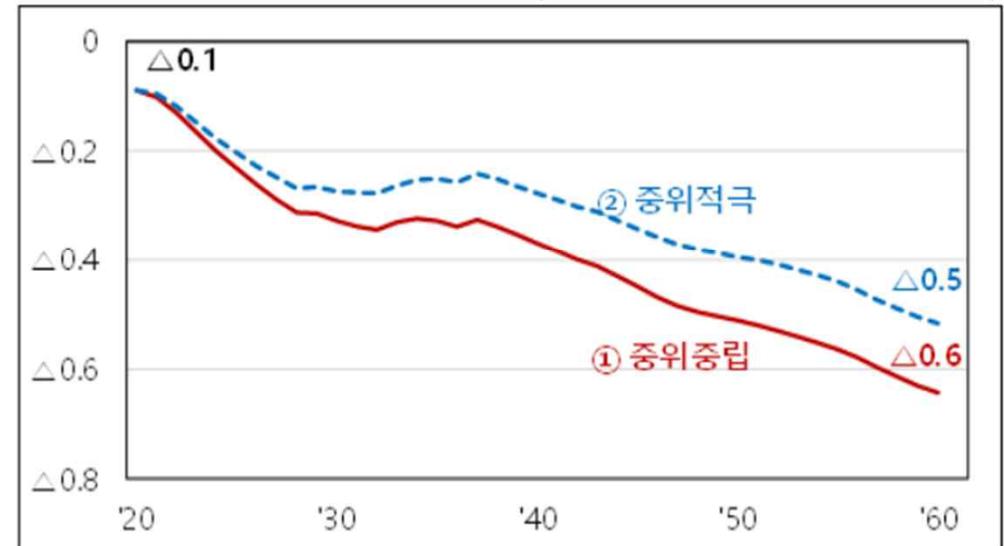
① 중위중립

('20) Δ 0.1 → ('40) Δ 0.4 → ('60) Δ 0.6

② 중위적극

('20) Δ 0.1 → ('40) Δ 0.3 → ('60) Δ 0.5

(단위: GDP 대비 비율, %)





장기 재정전망 결과

1. 정부의 2020 장기 재정전망 : 사회보험 분야 전망결과

-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처럼 적자가 지속·확대되나, 공무원연급에 준하는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적자폭 감소 예상**

① 중위중립

('20)△0.09 → ('40)△0.13 → ('60)△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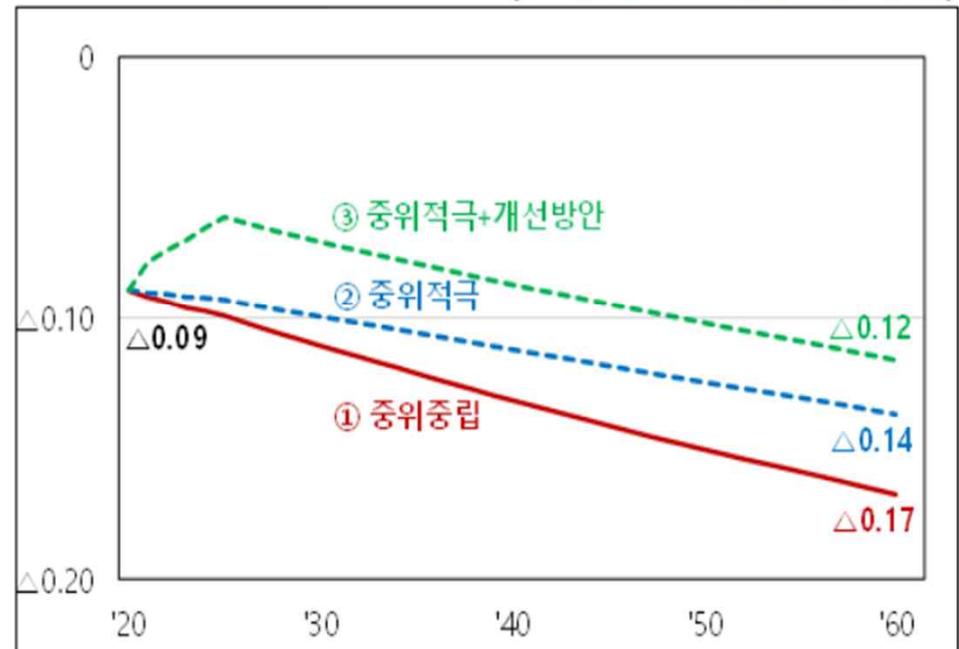
② 중위적극

('20)△0.09 → ('40)△0.11 → ('60)△0.14

③ 중위적극+개선방안

('20)△0.09 → ('40)△0.09 → ('60)△0.12

(단위: GDP 대비 비율, %)





장기 재정전망 결과

1. 정부의 2020 장기 재정전망 : 사회보험 분야 전망결과

◆ **(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은 급격하게 악화되어 커다란 재정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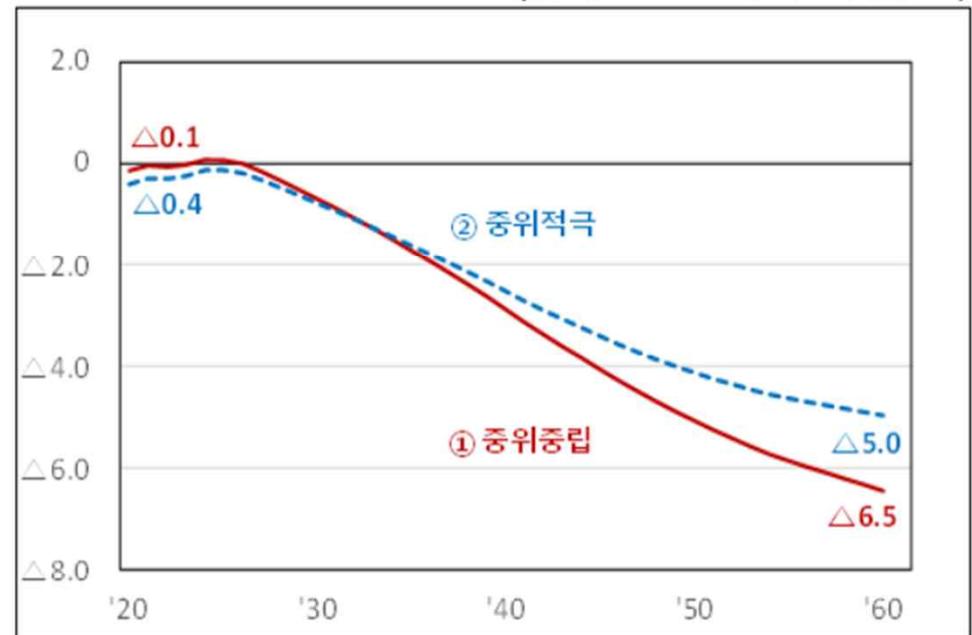
① 중위중립

('20)△0.1 → ('40)△2.9 → ('60)△6.5

② 중위적극

('20)△0.4 → ('40)△2.5 → ('60)△5.0

(단위: GDP 대비 비율, %)



* 보험료율 상한인 8.0%에 도달하는 '26년 이후 미인상 가정(2020년 6.67%)



장기 재정전망 결과

1. 정부의 2020 장기 재정전망 : 사회보험 분야 전망결과

- ◆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보험료율의 상한(8%)으로 노인장기요양의 재정상태도 지속 악화되어 상당한 재정위험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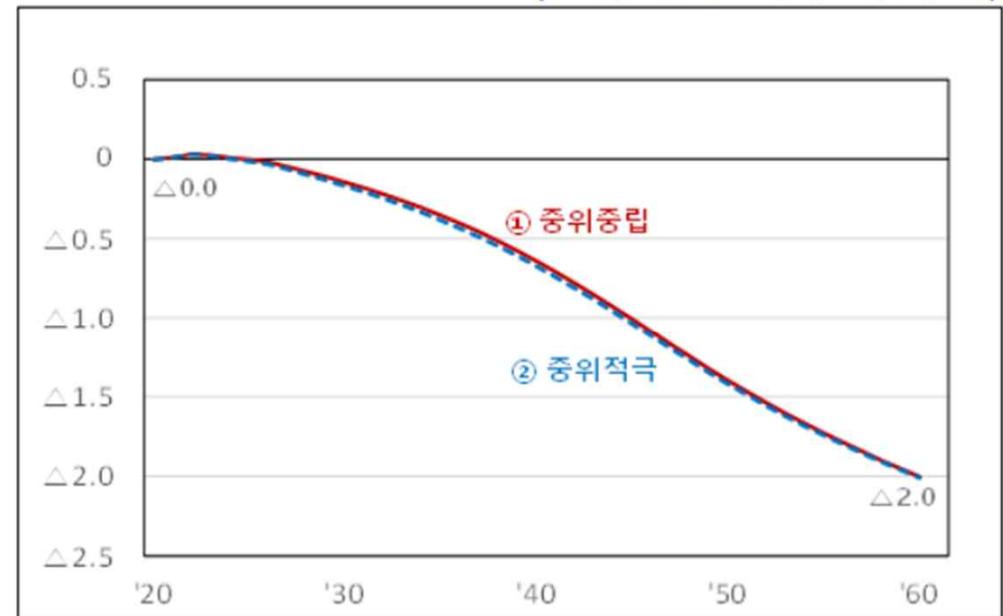
① 중위중립

('20)0.0 → ('40)△0.6 → ('60)△2.0

② 중위적극

('20)0.0 → ('40)△0.7 → ('60)△2.0

(단위: GDP 대비 비율,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이후 미인상 가정 (2020년 건강보험료액의 10.25%)



장기 재정전망 결과

2. NABO의 2020 장기 재정전망

◆ 전망 개요



-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경제성장세 둔화로 인해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 현행 재정정책이 미래의 인구 및 경제 여건 하에서도 지속가능한지 점검 필요

전망 대상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 기간	2020~2070년(50년간)
전망 기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 및 제도 유지 가정
기본 전제	거시경제변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인구변수: 통계청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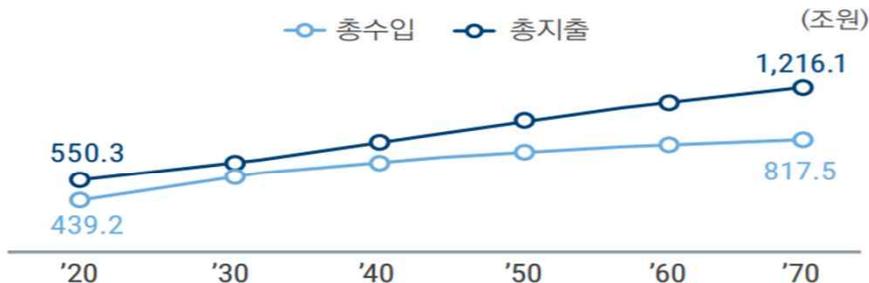
장기 재정전망 결과

2. NABO의 2020 장기 재정전망: 총수입 · 총지출 및 재정수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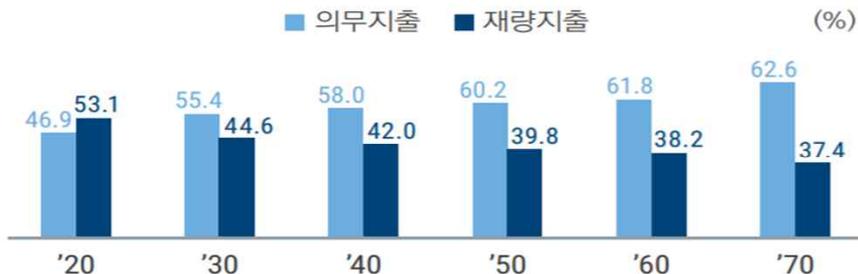
◆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지속 악화 전망

〈총수입 · 총지출 전망〉

총수입 증가율(연평균 1.3%) < 총지출 증가율(연평균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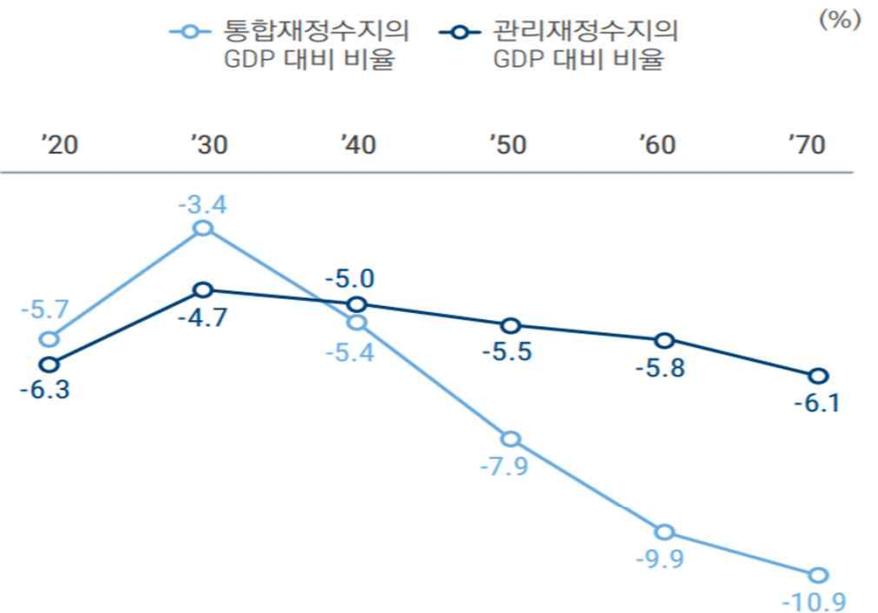
* 금액은 2020년 불변가격(GDP 디플레이터 적용)



총지출의 빠른 증가는 의무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
※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 46.9%('20) → 62.6%('70)

〈재정수지 전망〉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은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



통합재정수지: -5.7%('20) → -10.9%('70)

관리재정수지: -6.3%('20) → -6.1%('70)

※ 사회보장성기금 적자가 발생하는 2039년 이후부터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관리재정수지보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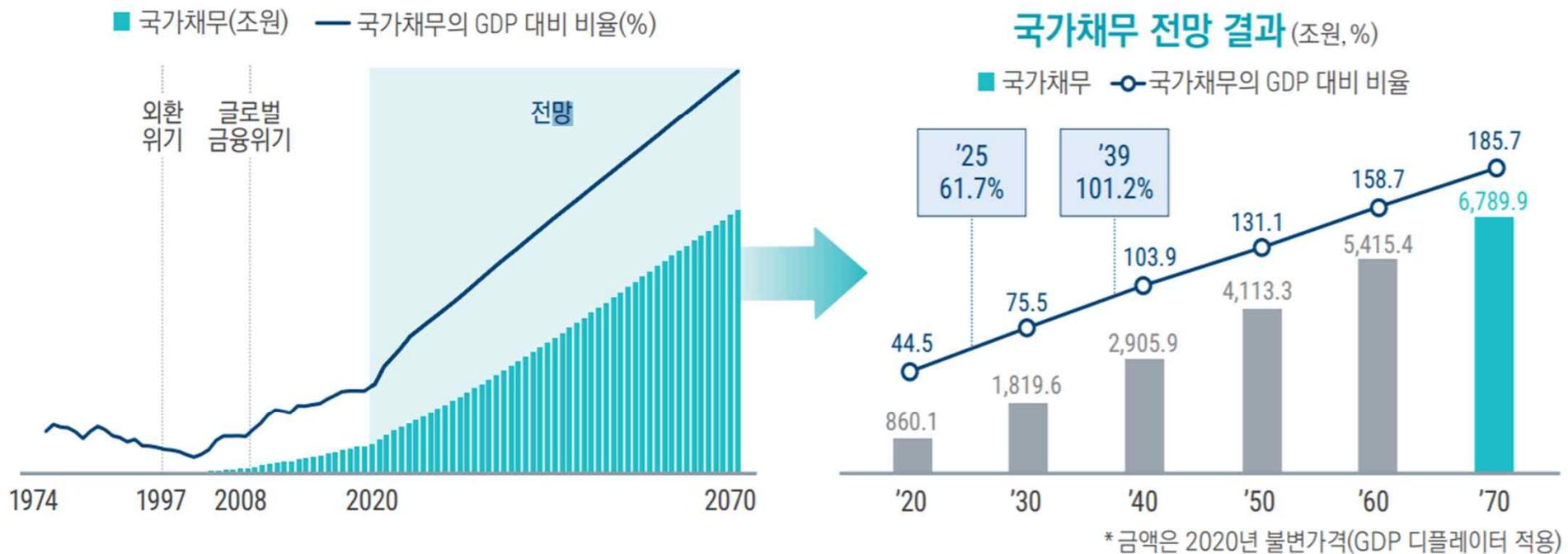


장기 재정전망 결과

2. NABO의 2020 장기 재정전망: 국가채무 비율 전망

◆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 악화됨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도 지속 상승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이 2020년 44.5%에서 2070년 185.7%로 증가 전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지속적 상승
2025년 60% 상회, 2039년 100%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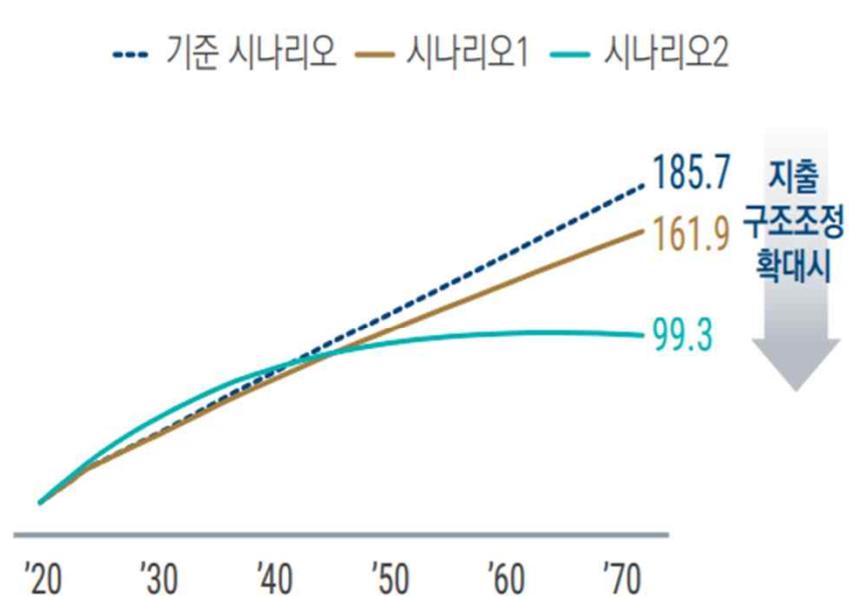


장기 재정전망 결과

2. NABO의 2020 장기 재정전망: 재량지출 감축 시나리오 전망 결과

◆ 재량지출 감축시 국가채무는 개선되나 국가채무 비율을 2070년 100%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무지출 감축 및 세입확충 노력 동시 필요

구분	주요 내용	2070년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
기준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2023년: 2020 추경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2024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12.4%*로 유지된다고 가정 <p>* '12~'20년간 GDP 대비 재량지출(추경 기준) 비율의 평균</p>	12.4%
시나리오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기준 시나리오의 재량지출 증가액 중 10% 감축 	11.6%
시나리오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재량지출이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한다고 가정 	8.8%



재량지출 증가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2070년 국가채무비율 99.3%(기준 전망 대비 86.4%p ↓)

전년 대비 재량지출 금액 증가분의 10% 감축하는 경우:
2070년 국가채무비율 161.9%(기준 전망 대비 23.8%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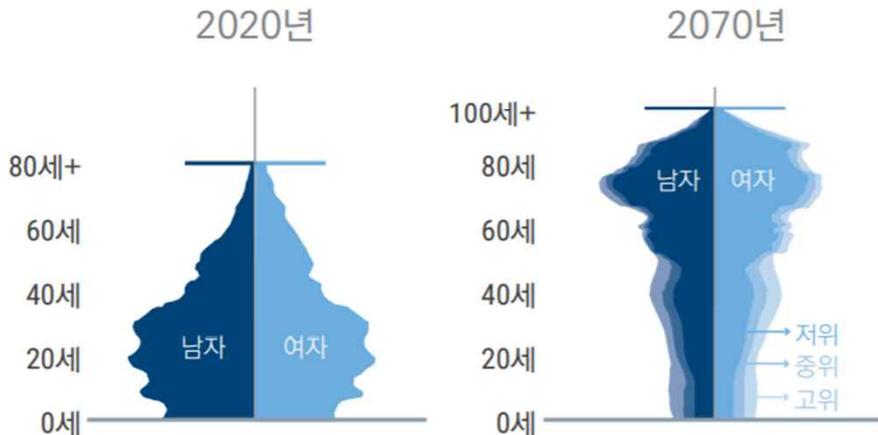


장기 재정전망 결과

2. NABO의 2020 장기 재정전망: 인구구조 변화 시나리오 전망 결과

◆ 각종 인구정책의 성과가 나타나면 국가재정 상태에 기여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 가능

2019년 합계출산율이 중위가정 수준보다 낮아져,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인구정책의 중요성 부각



인구추계 가정별 2070년 국가채무비율(%)



총인구 수: ('20) 중위 5,178만명 → ('70) 저위 3,186만명, 중위 3,782만명, 고위 4,434만명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중위 15.7% → ('70) 저위 50.0%, 중위 46.5%, 고위 43.3%

인구추계 저위: 중위 대비 국가채무 13.3%p ↑
 인구추계 고위: 중위 대비 국가채무 6.2%p ↓
 저위의 악화 효과(13.3%p ↑) > 고위의 개선 효과(6.2%p ↓)



장기 재정전망 결과

3. 재정전망 비교

◆ 전제 비교

- 인구전제: 동일(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추계 사용)
- 거시전제: 자체전망 사용

(단위: %, %p)

		'21~'30 (A)	'31~'40	'41~'50	'51~'60 (B)	차이 (B-A)
실질 성장률	나보 (A)	2.3	1.5	1.2	0.9	△1.4
	정부 (B)	2.3	1.3	0.8	0.5	△1.8
	국민연금 4차 계산	2.3	1.4	1.0	0.8	△1.5
	차이 (A-B)	0	0.2	0.4	0.4	
명목 성장률	나보 (A)	3.5	2.8	2.6	2.3	△1.2
	정부 (B)	3.8	2.9	2.4	2.2	△1.6
	차이 (A-B)	△0.3	△0.1	0.2	0.1	



장기 재정전망 결과

3. 재정전망 비교

◆ 재량지출 전망방식의 비교

	재량지출 전망 방식
NAB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2023년: 2020년 추경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24년 이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2012~2020년간 평균인 12.4%(추경반영)로 유지된다고 가정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준칙)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재량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어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 <p>⇒ 재량지출(t) = 총지출 전망(t) - 의무지출 전망(t)</p> <p>이때, 총지출 전망(t) = 총지출 전망(t-1) × (1 + g(t))</p>



장기 재정전망 결과

3. 재정전망 비교: 총수입 · 총지출 및 국가채무 비율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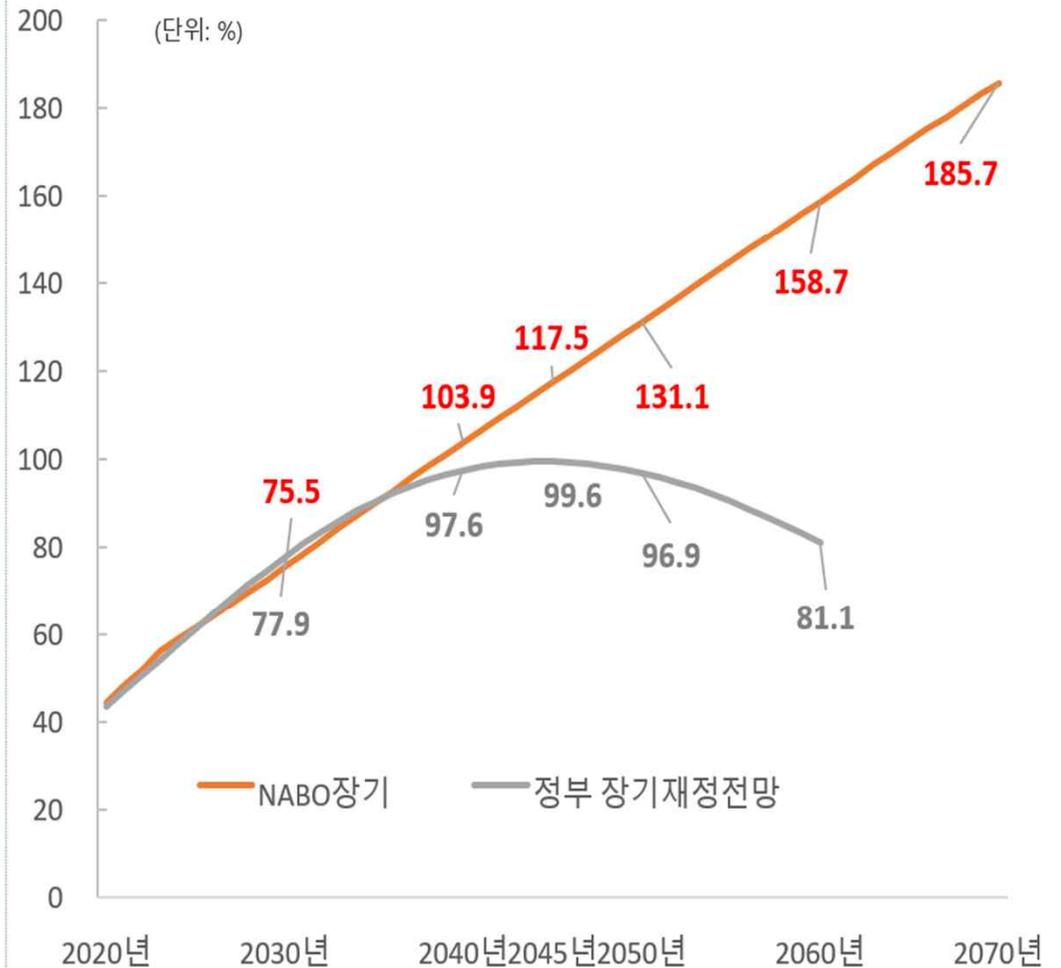
▣ 총수입, 총지출 전망 결과 비교

(단위: %)

구분	'20	'30	'40	'50	'60	
정부	총수입	24.4	24.8	24.9	24.2	23.4
	총지출	25.9	27.4	27.4	27.4	27.4
	- 의무지출	13.0	15.6	18.4	20.4	21.6
	- 재량지출	13.0	11.8	9.1	7.0	5.8
나보	총수입	22.7	24.5	24.2	23.4	22.6
	총지출	28.4	27.8	29.5	31.2	32.5
	- 의무지출	13.3	15.4	17.1	18.8	20.1
	- 재량지출	15.1	12.4	12.4	12.4	12.4
차이 (%P)	총수입	-1.7	-0.3	-0.7	-0.8	-0.8
	총지출	2.5	0.4	2.1	3.8	5.1
	- 의무지출	0.3	-0.2	-1.3	-1.6	-1.5
	- 재량지출	2.1	0.6	3.3	5.4	6.6

▣ 국가채무 전망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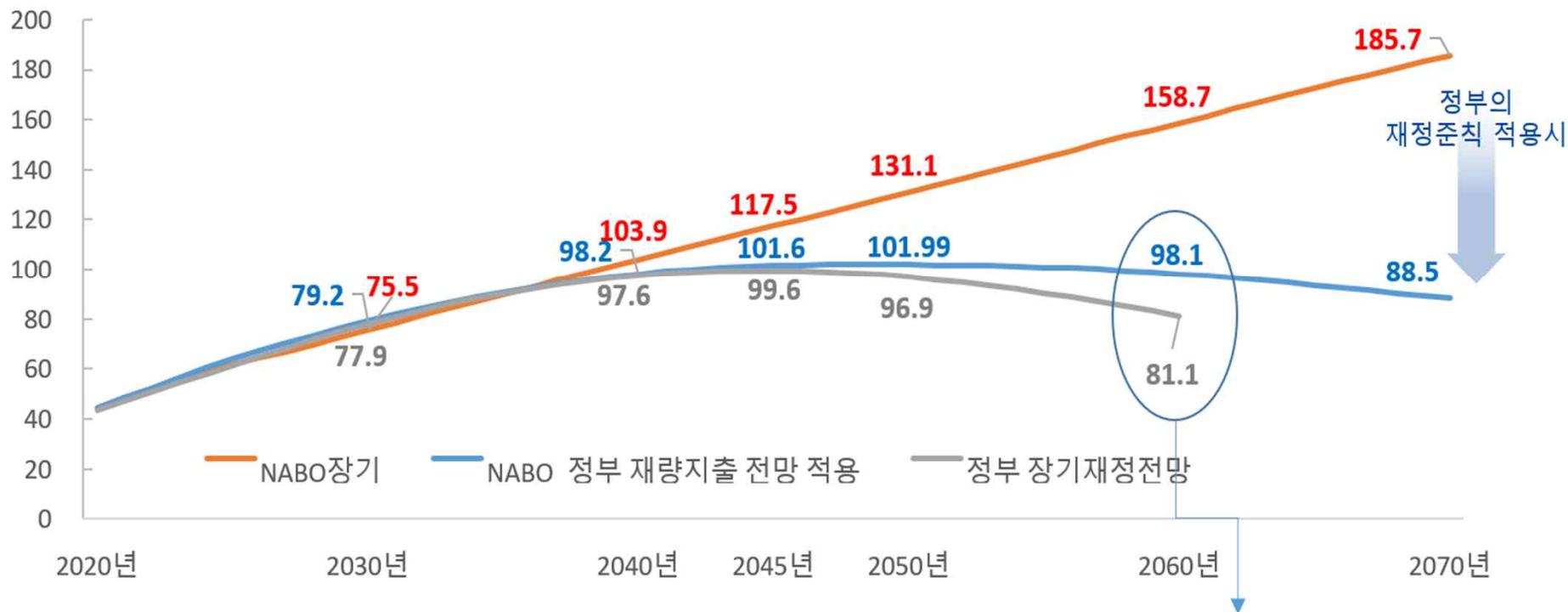




장기 재정전망 결과

3. 재정전망 비교: 국가채무 비율 전망 비교

◆ 정부가 사용한 재정준칙(총지출 증가율=경상성장률)을 적용시 정부 전망과의 격차 대폭 축소



*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가정이 전망기간 후반부에 NABO보다 낮은 반면,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정부 추계치가 높아 정부의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낮게 전망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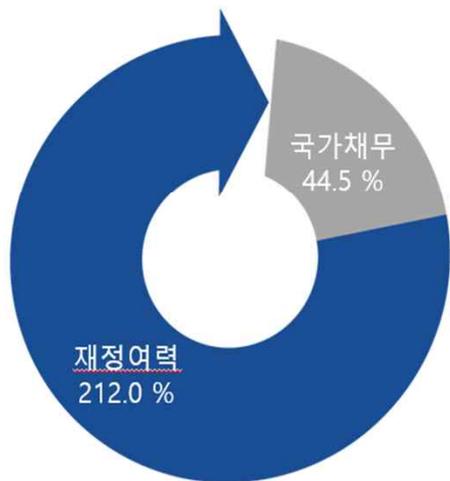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1. 재정여력(fiscal space)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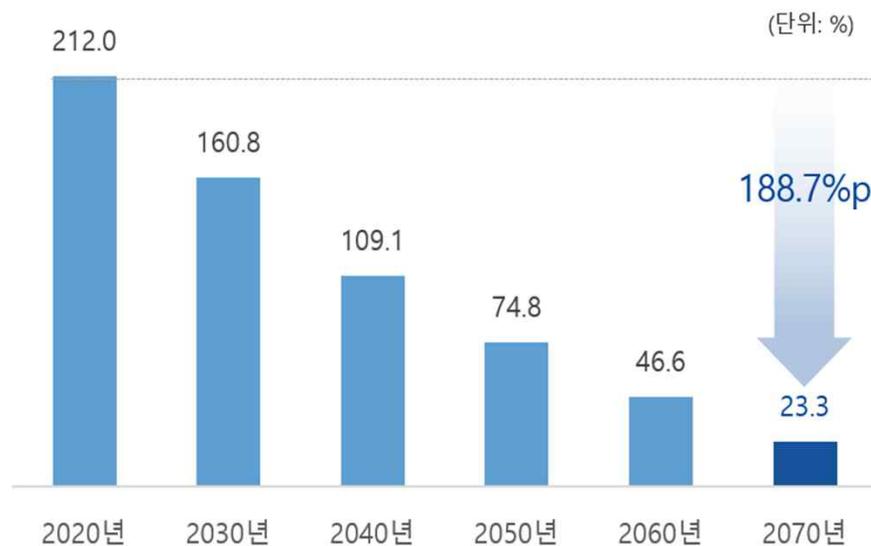
2020년 기준 재정여력: GDP대비 212.0%

국가채무 비율 상한 256.5 %



- **재정여력**: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채무의 상한 (debt limit)과 현행 국가채무의 격차 의미
 - 현 국가채무 수준이 국가채무의 상한을 초과하는 영역에 있다면, 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Ghosh 외(2013), Ostry 외(2010))

전망 시점별 재정여력 추이



-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여력 급격하게 감소
 - 2070년이 되면 2020년 대비 재정여력 188.7%p 감소

재정여력이 충분한 현시점부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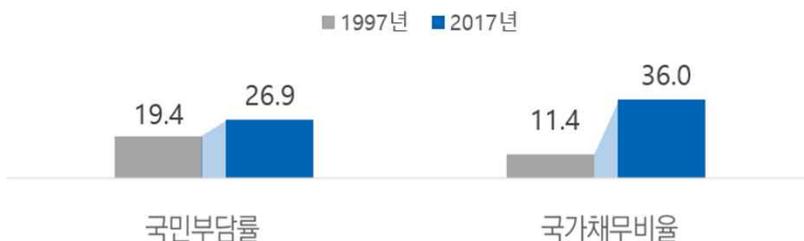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참고: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 비율 간의 관계>

국민부담률 vs 국가채무 비율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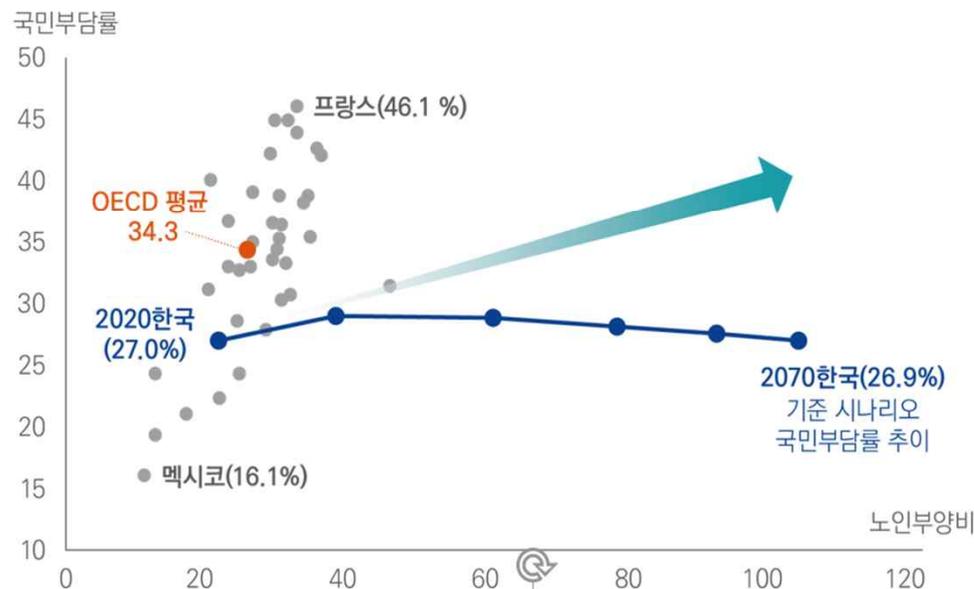


- 국민부담률은 1997년 19.4 % → 2017년 26.9%로 증가
⇒ 국가채무는 안정적 관리 가능('97: 11.4% → '17: 36.0%)



- 국민부담률이 1997년 수준인 19.4 %로 유지시
⇒ 국가채무 비율: 1997년 11.4% → 2017년 106.5% 폭증

국민부담률 전망(2020~20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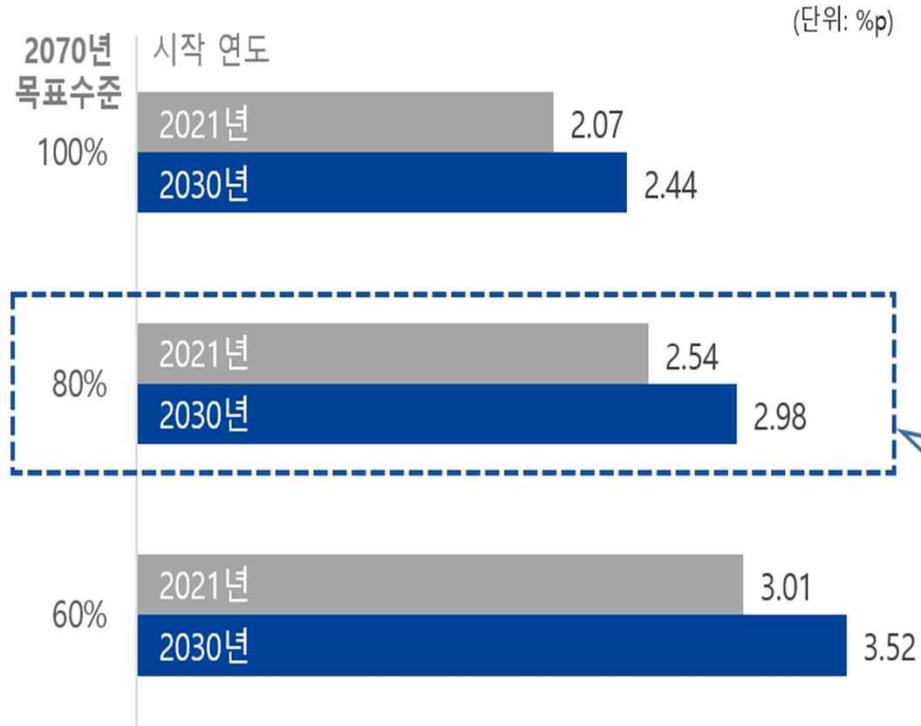
- 국민부담률은 전망기간 중 27.0 % 내외 유지
- 조세 및 사회보험 보험료를 현행 유지, 사회보험 적자 미반영
- 사회보험 재정적자를 국민이 모두 부담하여 수지균형 달성시, 국민부담률은 1.48배 증가하여 OECD 평균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 존재

국가와 국민이 재정부담을 과거처럼 꾸준히 분담할 필요, 현세대의 고통분담은 미래 세대의 부담 축소에 매우 중요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2. 국가채무 비율 목표 설정시 개혁시점별 기초재정수지 개선분



2070년 국가채무(D1)비율 80%* 수준을 유지하려면 2021년 이후 매년 GDP 대비 2.54%p**의 기초재정수지 개선 필요

* 2018년 OECD 정부부채(D2) 비율 평균

** 2020년 금액으로 49.1조원

⇒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세입확충 또는 지출감축 등의 재정노력 필요

⇒ 재정개혁의 시작이 늦을수록 매년 개선해야 하는 기초재정수지 규모는 증가



결론 및 시사점





결론 및 시사점

1.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기초한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

1. 가용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성장률 제고에 총력대응
2. 수입기반 확충
3. 특단의 지출구조조정 추진
4. 재정준칙 도입
5. 사회보험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 개선
6. 주기적 재정위험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7.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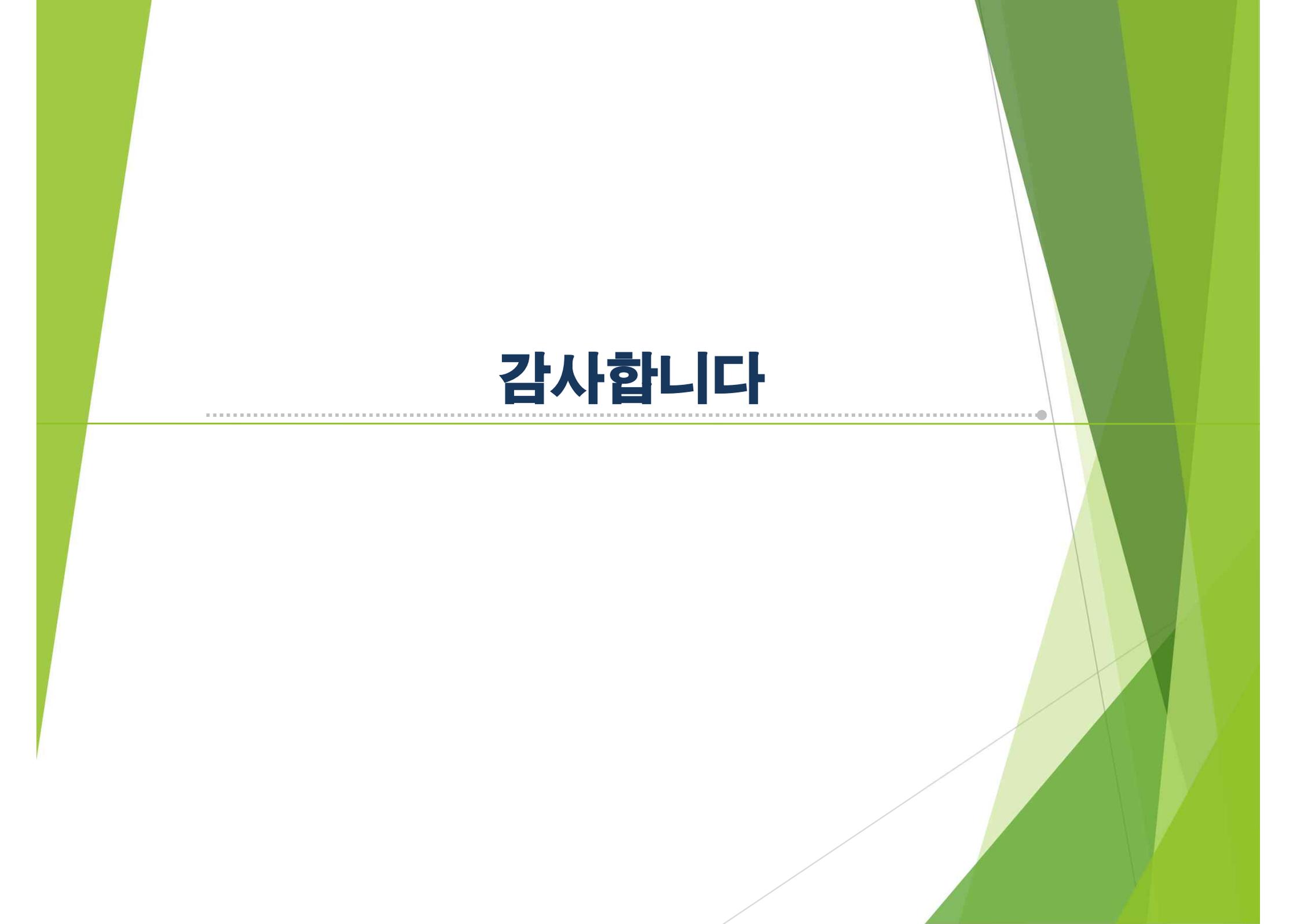


IV 결론 및 시사점

2.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① **충분하며 투명한 재정전망 결과 및 재정위험요인 공개 의무화**
 - 주기: 매년 또는 격년(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기)
 - 전망기간: 국민연금기금고갈 후 수지적자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기간(최소 50년)
 - 전망전제, 방법, 재정총량 및 주요 분야별 세부 전망결과 상세 정보 공개
- ② **주요 정당 대선 공약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제 도입**
- ③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할 복지수준, 국민부담률 및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이를 뒷받침할 재정운용전략 마련**
 -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 기존 지출의 필요성·효과성·우선순위 검토를 제도화하여 지출 구조조정 및 효율화 추진
 - 효율성·형평성 관점의 세수확충 방안 모색
- ④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전문가 중심의 독립 재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앞서 제시한 사항에 관한 안건 심의·의결**

감사합니다

The background features abstract green geometric shapes in various shades of green, including lime and forest green, arranged in a modern, layered style. A thin, solid green horizontal line spans the width of the page, with a dotted line segment extending from the text area to the right edge. A small grey dot is positioned at the end of the dotted line on the right side.